

스기미쓰 자기점

스기미쓰 자기점은 지금으로부터 160 년 이상 전에 시오타쓰가 지역의 도토(도자기의 원료가 되는 백색 점토) 유통의 거점이었던 에도 시대(1603~1867) 말기에 지어졌습니다.

제 2 차 세계대전 후 스기미쓰 자기점은 몇 번이나 대홍수를 겪었습니다. 가장 피해가 컸던 1962 년에는 1 층 천장 부근까지 물이 차올랐습니다. 부지 전체는 3 층 규모의 안채와 주위에 있는 3 개의 창고로 구성되어 있습니다. 이구라즈쿠리 양식으로 지어진 안채는 이리모야즈쿠리(팔작지붕) 양식의 기와지붕으로 되어 있고 흰색으로 칠해진 박공벽을 볼 수 있습니다. 현재는 매장 내 카페에서 휴식을 취하거나 판매되고 있는 도자기 제품을 볼 수 있습니다.

산노구라(세 번째 창고)는 1910 년부터 1916 년에 걸쳐 시오타 은행에서 한때 사용했지만, 후에 원래의 용도로 되돌려졌습니다.

1998 년 9 월 2 일에 국가 등록 유형문화재로 등재되었습니다.